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타지 출신들 '점령'

## 광주·전남 의사 부족 사태 우려

### 지역출신 특별전형 확대해야

광주지역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사실상 타 지역 출신들이 점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출신들은 졸업 후 개업이나 대학 및 병원 근무 시 대부분 출신지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광주·전남의 경우 수련내 의료 인력 부족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의료계에서는 대학원생 모집시 지역 대학 출신은 물론 광주·전남 고교 졸업자 등에 대한 특별전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조선대와 전남대에 따르면 양 대학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합격

자의 64%가 수도권 지역 출신이며,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올해 처음 신입생을 모집한 조선대 의과전문대학원의 경우 합격한 125명 가운데 62.4%인 78명이 서울 거주자이며, 여기에 인천·경기(9명)까지 합할 경우 69.6%가 수도권 출신이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모두 15명으로 12%에 불과했다.

치의학전문대학원도 합격자 80명 가운데 서울 62명, 인천·경기 2명 등 수도권 출신이 80%나 됐으며, 광주에서만 8명(10%)이 포함됐다.

전남대는 의과전문대학원 합격자

63명 가운데 34명(54%)이 광주·전남 출신이어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서울(20명), 경기(4명) 등 수도권 24명(38.1%), 충청·영남권이 각각 2명, 제주가 1명이었다.

또 치의학전문대학원은 합격자 70명 가운데 서울 30명(42.9%), 경기 12명(17.1%) 등 수도권 출신이 60%에 달했으며 광주·전남 23명(32.9%), 영남 5명(7.1%) 등이었다.

특히 이는 각 대학이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한 이 지역 출신 합격자를 포함한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선대는 의학·치의학전문 대학원의 모집과정에서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의 약 10%를 광주·전남 출신 고교 졸업자와 조선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전남대는 같은 특별전형에서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 광주·전남 지역 대학 졸업자 및 전남대 졸업자 등을 35% 가량이나 뽑았다.

특히 양 대학의 치의학전문 대학원은 수시 모집 특별전형시에는 광주·전남지역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정시 모집 특별전형에서는 해당 대학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 지역 출신이지만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입학률 증진을 결과를 초래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수시는 물론 정시에서도 해당 대학 출신만이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그 폭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준기자 chae@kwangju.co.kr

### 전남학숙 2009 입사생 28일부터 원서 접수

전남학숙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2009년도 입사생 원서를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남자 110명과 여자 52명 등 모두 162명의 신입생을 뽑게 된다.

입사자격은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광주 및 인근 소재의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평균 성적 6등급 이상, 수시모집합격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평균 성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교 재학생과 대학원생은 전 학년 평균 성적이 C+(2.5점) 이상인 자만 가능하다.

신청자는 입사원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접수를 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남학숙(061-370-6208)으로 문의하거나 전남학숙 홈페이지(www.cnha.or.kr)에 접속하면 된다. 입사생 발표는 다음달 7일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되고, 보호자의 주소지에도 우편으로 통보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38분 해질 17시 50분 달돋이 04시 34분 달질 14시 05분

김이 모락모락 내고향 방앗간 대체로 맑다가 오후들어 구름이 많아지겠다.

| 지역  | 날씨      | 최저/최고   |
|-----|---------|---------|
| 광주  | 맑은 뒤 흐림 | 1/11°C  |
| 목포  | 맑은 뒤 흐림 | 1/10°C  |
| 여수  | 맑음      | 3/10°C  |
| 완도  | 구름 조금   | 1/11°C  |
| 구례  | 맑은 뒤 흐림 | -3/11°C |
| 해남  | 구름 조금   | -2/11°C |
| 장흥  | 구름 조금   | -3/12°C |
| 고흥  | 맑음      | -1/11°C |
| 순천  | 구름 조금   | 1/11°C  |
| 영광  | 구름 조금   | -1/10°C |
| 진도  | 구름 조금   | 0/12°C  |
| 전주  | 맑은 뒤 흐림 | -1/11°C |
| 남원  | 구름 조금   | -3/11°C |
| 속산도 | 맑은 뒤 흐림 | 4/9°C   |

| 바다        | 풍향    | 파고       | 밀물       | 썰물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서~북서 | 0.5~2.0m | 목포 11:51 | 04:27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북서 | 1.0~2.5m | 23:37    | 17:42 |
| 남해 서부 앞바다 | 서~북서  | 0.5~2.0m | 여수 07:09 | 00:10 |
| 남해 서부 앞바다 | 북서~북  | 1.0~2.0m | 18:53    | 13:26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짜    | 23(금) | 24(토) | 25(일) | 26(월) | 27(화) | 28(수) |
|-------|-------|-------|-------|-------|-------|-------|
| 날씨    | ☁     | ☁     | ☁     | ☁     | ☁     | ☁     |
| 최저/최고 | 0/1   | -6/1  | -6/1  | -6/2  | -6/4  | -3/8  |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에서 박영현 전남경찰청장(오른쪽에서 네번째)과 농민단체, 농협전남본부 관계자 등 행사 참석자들이 대형 김밥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노태우 前 대통령 조카 상대 소송 각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동생이 설립한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오로라 씨에소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일한 손해 중 28억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조카 호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 9일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필뉴스

### 설 귀성길 눈 '평평'

기상청 "안전운전" 해 풍랑주의보 등이 발효될 것"이라며 "특히 설을 찾는 귀성객들은 여객선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교통편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낮부터는 눈과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설날인 26일은 눈은 내리지 않고 맑으며, 이날 광주의 기온은 영하 6도~영상 2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옛 도청 별관 문제 지혜롭게 수습돼야"

5·18 29주년 행사 기획단 5·18 관련단체가 옛 도청 별관 철거 문제를 놓고 6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며 "29주년 기념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이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기획단은 특히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와 추진단이 그동안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해 왔으나 시민여론 수렴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한계도 있었다"며 "보다 넓은 안목과 식견으로 5월 관련단체의 주장 및 요구 사항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현기자 golee@kwangju.co.kr

### 경찰·농민 설 맛이 '화합장터'

#### 전남지방경찰청사서 ... 1억3천여만원 구매

##### 대형 김밥 함께 만들어

전남 경찰과 농민이 설 맛이 '화합장터'를 마련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1일 청사에서 광주·전남 농민연대 등과 함께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직

거래 장터'를 열었다. 경찰이 그동안 농민집회 현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던 농민들과 '화합 장터'를 개설, 농촌경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남청 직원들이 농산물 구매에 적극 참여해 1억3천여

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 제수용품과 참전복 등 20개 품목이 시중가보다 5천~1만원 가량 저렴하게 판매돼 큰 호응을 얻었다. 경찰과 농민들은 대형 김밥을 함께 만들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박영현 전남청장은 "이번 행사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 농가의 시름을 덜어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관계자는 "경찰이 치안유지 활동에도 바쁜 텐데 우리 농산물의 판로 확대까지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지역 농민들에게 상당한 위안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영광글비 설날맞이 직송판매**

고마운분들께 마음을 담아 선물하세요!

謹賀新年

전주시민 협회에서는 직접 제작해 배송해 드립니다. 택배비 무료

문의전화: 351-0094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영광로 100-1

영광글비 직송판매

351-0094